

“주님 섬기려 모였는데 왜 상처를 주고 받을까?”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299장 다함께

1.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2.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3.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4.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 도 맡은이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3:1~3 다함께

¹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²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³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Ⅰ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주님 섬기려 모였는데 왜 상처를 주고 받을까?”

2026. 1. 6. 신년비전새벽기도회 설교

은사가 풍성한데 왜 ‘어린아이 교회’일까?

고린도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고전1:7)고 말할 정도로,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 예언, 지식, 믿음 등 손에 꼽기 힘들 만큼 많은 은사가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편지에서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고전3:1)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고전3:3).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고전3:4) 하며 파당을 짓고, 라인을 만들고, 자기 사람을 감싸고, 다른 라인을 향해서는 날이 선 말을 쏟아냈습니다. 은사는 많은데, 사랑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 은사가 풍성해도, 사랑이 자라지 않으면 교회는 여전히 ‘어린아이 공동체’입니다.

“주님 섬기려 모였는데 왜 서로 상처를 줄까?”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교회는 왜 모입니까?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낙오되지 않기 위해 함께 믿음의 길을 가려고, 힘을 모아 선교와 섬김을 잘 해보려고 모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어떨습니까? 서로를 향한 오해와 서운함, 말 한마디에 남는 상처, 사역하다가 생기는 갈등과 분열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섬기려고 모였는데, 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지?” 이 질문이 고린도교회에서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울리고 있습니다.

※ “주님을 향한 열심”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식” 으로 섬기지 않으면, 상처가 쌓입니다.

“문제는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과 방식’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등장하는 은사들은 고린도교회가 자랑하던 것들입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모든 비밀과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원래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는 그 은사를 다른 방향으로 사용했습니다.

- * 방언은 ‘나의 영적 수준’ 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고,
- * 지식은 ‘내가 옳고 똑똑하다’ 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 * 말은 상대를 설득하고 이기기 위한 논리의 무기가 되고,
- * 믿음은 다른 성도의 존경심을 확보하는 자산처럼 여겨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와 자기 과시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보다, 교회를 핏내는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세상의 방식 vs 십자가의 방식”

사도 바울은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은사 다 버려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전12:31)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열어 갑니다. 여기서 “더 큰 은사” 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더 큰 은사 아래에 있을 때, 각 사람의 은사는 비로소 제 자리를 찾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은 ‘옳음’ 을 증명하려 하지만, 십자가의 방식은 ‘사랑’ 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면 상처가 남지만, 십자가의 방식으로 섬기면 화음이 남습니다.

※ 교회는 “내가 옳다” 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결론

한 도시에 최고 수준의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가 있었지만, 각자 자기 소리를 증명하려 하다가, 결국 음악은 화음이 아니라 소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휘자는 “여러분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전체 음악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 라고 말했고, 연주자들이 자기 소리를 조금 줄이고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지휘자에게 집중하자 비로소 음악이 깊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휘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각자 자기 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각자의 소리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지휘자되신 그리스도께 내 주파수를 고정하면서, 형제자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교회는 이렇게 해서 상처를 만들어 내지 않고 화음을 만들어 내고 걸작품을 세상에 선사하게 됩니다.

말씀 나눔

- ① 고린도교회는 “은사가 부족한 교회”가 아니라 “은사가 풍성한 교회” 였는데도 왜 사도 바울에게 어린이 교회라고 꾸지람을 받았습니까? (힌트: 시기, 분쟁, 파당)
- ②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섬김의 기회를 사용할 때, 무엇을 더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까? “내 수준, 내 옳음, 내 실력” 인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과 형제자매의 유익” 인가를 돌아보며, 최근 사역 속 한 장면을 떠올려 나눠 봅니다.
- ③ 오케스트라 비유를 떠올리며,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상처 대신 화음’을 만들기 위해 내가 조금 줄여야 할 ‘내 소리’는 무엇일까요? 말의 톤, 주장하는 방식, 나만의 기준 등 구체적인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제목으로 삼습니다.
- ④ 오늘 공과를 통해 받은 은혜나 위로,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한 구절을 붙잡고, 그 구절을 삶 속에서 연습해 보고자 하는 ‘한 가지 실천’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